

## 권정생 단편동화집 『강아지똥』 연구

남 지 현\*

### 차 례

- |                        |                            |
|------------------------|----------------------------|
| 1. 작품집 『강아지똥』 연구의 필요성  | (1) 평면적 인물의 현실 승인과 순명      |
| 2. 『강아지똥』 창작 시기의 작가 의식 | (2) 입체적 인물의 성장과 희생         |
| 3. 『강아지똥』에 수록된 작품들의 양상 | 2) 역사의식을 드러내는 서사의 양상       |
| 1) 인물의 특성에 따른 서사의 양상   | (1) 전형적인 리얼리즘 서사 문법을 통한 재현 |
|                        | (2) 서사시적 압축을 통한 재현         |
|                        | 4. 『강아지똥』의 문학사적 의의         |

### 국문초록

권정생의 문학은 많은 경우 작가의 전기적 생애에 기반하여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는 비단 작가 권정생의 문학사적 위상이 지닌 영향력 뿐 아니라 작가의 생애 자체가 기독교적 세계관이나 인물의 삶을 통해 투영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간의 연구들이 비판받는 지점은 이러한 작가의 생애에 다소 압도되어 객관적인 작품 분석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이다. 몇몇 대표작에 치중하고 있는 기존의 연구 성과 역시 권정생 문학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보완되어야 할 지점이다. 따

\* 인천가원초등학교 교사

라서 본 연구에서는 작가의 생애에 대한 참조를 가급적 배제하고 작품 자체의 분석에 초점을 두어 권정생의 첫 번째 창작집 『강아지똥』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강아지똥』의 수록작들을 몇 가지 양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첫째, 인물의 특성에 따른 서사의 양상은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을 나타냈다. 둘째, 역사의식을 드러내는 서사의 양상은 서사 문법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권정생의 첫 번째 창작집 『강아지똥』이 갖는 한계와 성취, 후속작과의 연결고리 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주제어 : 권정생, 『강아지똥』, 서사양상, 입체적 인물, 평면적 인물, 역사의식

## 1. 작품집 『강아지똥』 연구의 필요성

『강아지똥』이 권정생의 대표작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권정생은 『강아지똥』으로 1969년 월간 『기독교교육』이 주관한 공모에 당선되어 등단하였으며, 처음 묶어낸 단편동화집 역시 『강아지똥』을 표제작으로 삼고 있다. 이후 『강아지똥』은 텍스트의 각색을 거치고 정승각의 그림이 더해져 그림책 『강아지똥』<sup>1)</sup>으로 재탄생하였으며 애니메이션, 음악극 등 다양한 매체로 변용되었다.<sup>2)</sup> 초등학교 교과서는 물론 중학교 김인정 교과서에 수록됨으로써 대중성뿐 아니라 아동문학 정전으로서의 권위를 모두 얻

1) 권정생 글·정승각 그림, 『강아지똥』, 길벗어린이, 1996.

2) 관련 연구로는 김경은, 『음악극:강아지똥』, 2008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임정희, 『강아지똥:음악극』,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김하얀, 『애니메이션 ‘강아지똥’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안 연구』, 수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유미, 『동화 『강아지똥』 매체 변용에 따른 아동의 문학 반응 양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등이 있다.

게 되었다.

『강아지똥』에 대한 지배적인 평가 역시 이와 같은 작품의 위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원수는 작품집의 날개 광고에 “권정생 씨가 어린이들을 위해 눈물과 피로 써 놓은”<sup>3)</sup> 동화들이라고 쓴 바 있으며 이오덕은 발문에서 “가련한 목숨들의 세계를 찾아가 그들을 부둥켜안고 뜨거운 눈물과 무한한 사랑을 쏟는”<sup>4)</sup> 작가의 작품이라 언급하였다. 이현주는 『강아지똥』이 “한국 아동문학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선을 그”는 작품이며, “우리 한국이 세계에 내놓을 만한 격조 높은 동화문학”<sup>5)</sup>이라 평가하였다. 원종찬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빛이 날 겨레 아동문학의 꽃”<sup>6)</sup>으로 상찬했다. 이상의 담론들에 의하면 『강아지똥』은 작가 권정생의 대표작일 뿐 아니라 한국 아동문학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강아지똥』에 대한 비판적인 접근<sup>7)</sup>이 시도되거나 『강아지똥』이 대중들의 사랑을 받게 된 계기인 그림책 『강아지똥』의 글 텍스트가 권정생이 창작한 원전과 다른 점을 감안하면서 『강아지똥』에 대한 알레고리적 독법을 경계한 연구<sup>8)</sup> 등 지배적인 비평 담론에 균열을 일으키는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간 권정생의 문학에 쏟아진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작가 사후 10년이 넘는 지금까지 작품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이 적절하고 균형 있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현 단계는 주제 중심의 분류<sup>9)</sup>나 작가의 생애에 입각한 분석, 작품의 미덕에 대한 일방적

3) 권정생, 『강아지똥』, 세종문화사, 1974.

4) 이오덕, 『학대받는 생명에 대한 사랑』, 권정생, 위의 책, 266쪽.

5) 이현주, 『동화작가 권정생과 강아지똥』, 『권정생의 삶과 문학』(원종찬 엮음), 창비, 2008, 83쪽.

6) 원종찬, 위의 책, 100쪽.

7) 이지호, 『『강아지똥』에 대한 재평가』, 『아동청소년문학연구』 No.20, 한국아동청소년문학회, 2017, 7-39쪽.

8) 조은숙, 『“마음”을 가르친다는 것: 동화 『강아지똥』에 대한 알레고리적 독해의 문제점』, 『문학교육학』 Vol. 22., 한국문학교육학회, 2007, 89-116쪽.

9) 김윤경, 『권정생 초기 단편동화의 희생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상찬 혹은 그간의 헌사에 대한 과도한 반작용처럼 보이는 비판적 관점이 아니라 권정생의 문학 세계가 지닌 미덕과 한계를 온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담론이 요구되는 시기라 할 것이다.

특히 그의 초기작 가운데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강아지똥』은 동명의 작품집 『강아지똥』에 수록된 초기 단편동화들과 몇 가지 특성을 공유하면서도 한층 완성도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연구는 『강아지똥』만을 독립적으로 다루고 있다.<sup>10)</sup> 『강아지똥』은 개별 작품으로 출간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작품이 아니라 오랜 습작기를 거치는 가운데 권정생의 다양한 창작의 실체가 응축되어 나타난 결과물의 일부로 바라볼 때 작가의 작품 세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강아지똥』에는 『몽실언니』와 같이 역사의식이 반영된 현실주의 계열의 후속 작품들과 연결되는 작품들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작품에 대한 정확하고 적절한 이해는 『강아지똥』을 감싸고 있는 작품집 『강아지똥』, 권정생의 초기 단편동화, 권정생의 작품 활동 전반, 권정생의 삶과 전반적인 작품 활동의 연관 등 점차 확장된 범주를 통해 순차적으로 규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권정생 문학 연구의 주된 경향은 몇몇 대표작에 집중되어 있거나 작가의 삶과 작품을 동일선상에 두고 평가하는 등 작품의 총체적인 규명을 목표로 하는 객관적인 분석과 해석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sup>11)</sup>

이에 이 연구는 『강아지똥』을 직접적으로 감싸고 있는 작품집 『강아

장경혜, 「권정생 단편 동화의 문체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박금숙, 「권정생 초기 동화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권혜경, 「권정생 초기 단편동화의 서사 양상 고찰」, 『한국아동문학연구』 Vol.32, 한국아동문학회, 2017, 81-101쪽.

10) 이렇게 볼 때 「무명저고리와 엄마」를 독립적으로 다루고 있는 다음의 연구는 예외적이라 할 수 있다: 이내관·정문환, 「권정생의 「무명저고리와 엄마」 연구」, 『한국언어문학』, 90, 한국언어문학회, 2014, 381-405쪽 참조.

11) 임성규, 「권정생 아동문학의 흐름과 연구 방향」, 『문학교육학』 Vol.25, 한국문학교육학회, 2008, 155-184쪽 참조.

『강아지똥』에 대한 자세한 읽기를 바탕으로 작품집의 미적 자질을 분석하고 권정생의 문학이 갖는 주요한 특성들에 대한 이해를 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강아지똥』이 창작될 무렵의 작가 의식에 대해 검토한 후 작품집 『강아지똥』의 서사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권정생의 초기 동화가 지녔던 가능성과 한계를 균형 있게 바라보고자 한다.

## 2. 『강아지똥』창작 시기의 작가 의식

권정생의 단편동화집 『강아지똥』은 1974년 세종문화사에서 출간되었다. 이 작품집에는 그동안 창작한 작품들이 빠짐없이 수록되었다. 『깜둥 바가지 아줌마』는 1968년 대구 매일신문 신춘문예에 응모하였으나 본선을 넘지 못하였다가 같은 해 8월 『새벗』에 게재된 작품이다. 『강아지똥』은 이듬해인 1969년 현상 모집에 당선된 작품이며 『떠내려간 흙먼지 아기들』은 1971년 『기독교교육』에 발표된 바 있다. 『무명저고리와 엄마』는 1973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작품이며 『토끼나라』, 『어느 주검들이 한 이야기』, 『뽕배가 보고 온 달나라』, 『오누이 지렁이』, 『장대 끝에서 웃는 아이』, 『금복이네 자두나무』 등도 같은 해에 쓰여졌으나 게재되지 못한 작품들이다. 이러한 작품들이 한데 묶인 『강아지똥』이 출간된 후 수록작 『금복이네 자두나무』가 1975년 한국아동문학가협회에서 제정한 제1회 한국아동문학상을 받았다. 당시 아동문학가협회는 이원수를 주축으로, 문인협회의 아동문학분과와 분리되는 가운데 창립된 단체였으며 이후 민족문학론, 표절동시론 등 아동문학계의 근본적인 쟁점을 제기한 바 있다.<sup>12)</sup>

이 시기 권정생의 문학관은 『아동문학평론』의 창간호에 실린 『위선에

12)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원종찬(『이원수와 70년대 아동문학의 전환』, 『문학교육학』 28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09, 499-525쪽 참조.

서 진실을 일깨워주는 일」<sup>13)</sup>이란 짧은 글에 잘 나타나 있다. 이 글은 창작의 요체인 ‘무엇을 쓸 것인가’와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권정생의 의식을 엿볼 수 있게 해 준다. 이 글에서 권정생은 ‘땀을 흘리지 않는 무리’인 ‘불한당’을 끌어와 논의를 시작하는데 기존의 문학을 ‘눈물과 땀이 없는 귀족문학’으로 규정한다. 실제 그의 작품들을 참고할 때 ‘눈물과 땀’은 어린이가 처한 어려운 현실과 그로 인한 고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현실을 드러내지 않는 문학은 “있으나마나한 문학이기 전에 있어서는 안 될 문학”이며 지금까지의 아동문학이 그러한 문학이었다고 선언한다. 그리고 그러한 위선적인 문학의 정반대 지점에 ‘전쟁의 상처, 민족적 슬픔’을 놓고, 작가란 작품을 통해 ‘어린이들의 눈을 뜨게 해야 하며 막힌 귀를 뚫어줘야 하며 진실이 무엇인가 알려주고 거짓 없는 눈물을 흘리게 해야 한다’고 피력한다. 어린이가 처한 어려운 현실의 구체적인 맥락으로 ‘전쟁이라는 민족사적 비극’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무딘 붓으로나마 계속 회칠한 무덤을 파헤쳐 썩은 송장을 들어내고, 진실의 꽃씨를 심어보고 싶다.

비속하지 않은 웃음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눈물, 그리고 죽을 때까지 흘릴 수 있는 땀과 새벽을 이야기하고 싶다. 자랑스런 한국의 어린이를 튼튼하게 키우기 위하여.<sup>14)</sup>

짧은 지면이기에 권정생의 작가 의식이 상세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기존의 ‘귀족문학’과 대타적인 자리에 자신의 작품을 설정하고, ‘전쟁의 상처, 민족적 슬픔’을 드러냄으로써 ‘진실의 꽃씨’를 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또한 슬픔뿐 아니라 웃음과 눈물, 땀과 희망을 담겠

13) 권정생, 『위선에서 진실을 일깨워주는 일』, 『아동문학평론』 1(1), 한국아동문학 연구센터, 1976, 77쪽.

14) 권정생, 위의 글, 77쪽.

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권정생의 포부는 『강아지똥』의 머리말에서 이미 제시된 것이기도 하다. “거지가 글을 썼습니다.”라는 충격적인 고백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머리말은 자신의 작품을 ‘참다 못해 터뜨린 울음 소리’로 규정한다.<sup>15)</sup> 그리고 현실을 ‘이리 같은 가짜 제사장과 재판관과 임금들이 판치는 세상으로 인식하고 그 대책에 자신의 동화를 놓고 있다. 현실의 고통을 가감 없이 표현하고 있기에 “어린이들에겐 지나치게 어려운 동화”<sup>16)</sup> 일지 모르겠다는 우려 역시 담고 있다. 무엇보다 권정생은 자신의 동화가 뿌리내리고 있는 근원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강변의 들메이, 들꽃, 지저분하게 널려 있는 골목길의 지푸라기랑 강아지똥까지 나는 미소로써 바라보며 그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외로움과 슬픔이 엄습해 올 때마다 그것들의 울부짖음에 공감을 가지며 스스로를 발견합니다. 내게 찾아오는 어린이들, 내게서 멀어져 가는 어린이들 모두가 메마른 바람결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없는 곳엔 참된 기쁨도 없습니다. 누군가 따손 손길로 어루만지며 함께 울어줄 친구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런 어린 것의 하나입니다.<sup>17)</sup>

들메이, 들꽃, 지푸라기, 강아지똥과 같은 대상과의 대화와 공감은 작품집 『강아지똥』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오덕이 언급한 ‘가난한 목숨들의 세계’와 나눈 대화가 작품의 요체인 것이다. 이러한 대상들이 중심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현실주의적 기율보다는 판타지적 설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작품집 『강아지똥』에 수록된 작품들은 대부분 판타지 장르를 채택하고 있다. 한편 “눈물이 없는 곳엔 참된 기쁨도 없”다는 언급을 통해 현실의 어려움을 드러냄으

15) 권정생, 『머리말』, 『강아지똥』, 세종문화사, 1974, 1쪽.

16) 권정생, 위의 글, 2쪽.

17) 권정생, 『『강아지똥』 당선 소감 - 끝없는 사랑을』, 『기독교교육』 1969년 6월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69, 47쪽.

로써 삶에 대한 진정하고 더욱 온전한 이해, 즉 앞서 언급한 삶의 ‘진실’에 가닿을 수 있다는 작가의 인식을 짐작할 수 있다. 낮은 자리에 존재하는 인물들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드러내는 작품집 『강아지똥』의 이야기들이 대부분 비극적 플롯으로 구성될 것임을 이러한 대목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sup>18)</sup>

흥미로운 사실은 권정생이 당대의 아동문학에 대해 갖고 있던 이러한 비판적인 인식이 성경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거지의 외침을 외면하고 그를 잡아 가두고 죽인 임금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양의 가죽만 쓴 이리같은 가짜 제사장과 재판관과 임금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없어야만”<sup>19)</sup> 한다고 피력한 바 있다. 주지하다시피 그의 초기작에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는데<sup>20)</sup> 이후 살펴볼 『강아지똥』의 수록작에서 드러나는 기독교적 세계관은 이와 같은 현실비판적인 관점보다는 현세보다는 내세에서의 구원과 행복을 희구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 3. 『강아지똥』에 수록된 작품들의 양상

작품집 『강아지똥』에는 「뜰배가 보고 온 달 나라」, 「떠 내려간 흙 먼지 아이들」, 「장대 끝에서 웃는 아이」, 「무명 저고리와 엄마」, 「깜등바가지 아줌마」, 「강아지똥」, 「어시장 이야기」, 「오누이 지렁이」, 「어느 주검들이 한 이야기」, 「사슴」, 「눈길」, 「떡구렁이 기차」, 「토끼나라」, 「금복이네 자두나무」, 「아기 양의 그림자 딸랑이」, 「남쇠와 파란 눈의 아이」 등 모두 16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에는 「무명 저고리와 엄마」나

18) 『강아지똥』 수록작의 비극적 플롯에 대해서는 권혜경, 앞의 글, 84-91면 참조.

19) 권정생, 「머리말」, 『강아지똥』, 세종문화사, 1974, 2쪽.

20) 권정생의 초기 동화에 나타난 기독교적 세계관은 엄혜숙, 「권정생 문학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22-57쪽 참조.



『금복이네 자두나무』처럼 리얼리즘적인 작품도 있지만 대부분은 판타지 작품들에 해당한다. 이들 작품의 판타지적 속성은 현실과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엄밀하게 2차적 질서를 전제하기보다 대부분 현실 공간과 판타지 공간의 구분이 없는 하위 환상(low fantasy)이거나<sup>21)</sup> 알레고리(allegory)<sup>22)</sup>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강아지똥』이 갖는 이러한 장르적 특성은 오늘날의 독자들이 판타지의 환상적 사건을 통해 경험하는 흥미진진한 모험과는 거리가 있다. 2장에서 살펴본 작가의식에서 알 수 있듯 판타지적 설정은 시공장에 떨어

21) 판타지는 물질적인 현실의 자연적인 법칙에 위배된다는 것을 기준으로 규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판타지 장르에 현실적인 요소가 없다는 의미가 아님은 주지의 사실이다. 판타지 세계 속 인물이 직면하는 상황 자체는 현실 세계의 작동 원리와 다를지라도 그들이 속한 사회는 현실의 세계와 같은 질서와 가치를 갖고 있으며 인물의 동기, 행위, 반응 역시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타지 장르에서의 핵심은 세부적인 허구 세계의 구축인데 판타지 작품에서의 세계는 특정 환상적 현상의 현전에 의해 낫설게 된, 우리가 속한 현실 세계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속한 세계와는 완전히 분리된 세계일 수도 있다(Herman, D., Manfred, J. A. H. N., & Marie-Laure, R. Y. A. N. (Eds.), *Routledge encyclopedia of narrative theory*, Routledge, 2010, pp.160-161 참조). 톨킨은 판타지 장르에서 현실의 작동 원리에 의해 지배되는 1차 세계, 환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2차 세계가 구별하고 2차 세계를 중시한 바 있다(Tolkien, J. R. R., *Tree and leaf*, HarperCollins, 2001, p.49). 톨킨의 정의를 따르고 있는 조아르스키와 보이어는 ‘상위 환상(high fantasy)’과 ‘하위환상(low fantasy)’을 구분하였는데 하위 환상이란 ‘현재’라는 1차 세계를 무대로 하고 있으나 그 안에서 과학이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비합리적 현상이 등장하는 경우로 텍스트는 그러한 비합리적 현상에 관해 어떠한 설명도 제공하지 않는다. 반면 상위 환상은 비합리적 현상이 2차 세계에서 일어나며 그러한 현상들에 대해 그럴듯한 설명을 제공한다(최기숙, 『환상』, 연세대학교출판부, 2010, 13-14쪽 참조).

22) 행위자와 행동, 때로는 그 배경까지가 축어적이거나 일차적 수준에서 일관된 의미를 구성하고, 행위자와 개념과 사건의 이차적이고 상호 연관적인 수준을 의미하도록 고안된 서사물로 축어적인 의미가 주어진 작중인물과 행동이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의미하는 역사적, 정치적 알레고리, 작중인물들이 추상적 개념을 나타내고 플롯은 학설이나 명제를 전달하는 역할을 맞는 관념의 알레고리로 나눌 수 있다(Abrams 저, 최상규 역, 『문학용어사전』예림기획, 1997, 15-20쪽 참조).

진 뿔배, 빗물에 휩쓸려 가는 흙 먼지, 깨어져 버려진 깜둥바가지, 버려진 주검들의 신체 일부처럼 버려지거나 죽어가는 존재들을 중심인물로 서사를 이끌어 가기 위해 소구되는 것이다. 것처럼 소외되거나 약한 존재들을 통해서 작가가 기독교적 세계관을 구현하고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판타지적 설정은 해석의 풍부함에 가닿지 못하고 알레고리적 은유로 읽히기 쉬운 것이다.<sup>23)</sup> 그러나 이러한 경향의 작품들도 인물의 특성이나 서사 전개의 세부 양상에 따라서 서로 다른 미적 성취를 거두고 있다. 가령 표제작 『강아지똥』 역시 기독교적 세계관이 알레고리적으로 투영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작품으로 평가받는 것처럼 유사한 속성을 공유한 작품들의 미적 성취를 결정하는 또 다른 기준 요소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독교적 세계관 외에도 권정생의 주요한 작가 의식으로 역사의식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권정생에게 진정한 아동 문학이란 어린이에게 땀과 눈물로 얼룩진 현실의 고통을 진실되게 보여주는 문학이었으며 전쟁으로 인한 민족사적 비극이야말로 그러한 진실의 구체적인 모습이었다. 이러한 역사의식은 훗날 『몽실언니』를 비롯한 전쟁 3부작의 창작을 가능케 한 토대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작품들은 대개 현실주의적인 기율 속에서 민족사의 질곡과 고통 받는 민중들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

23) 권혜경은 권정생 초기 단편동화에 나타난 주요 알레고리 유형을 심층 의미와 표층 어휘로 정리하면서 그러한 알레고리를 기독교적 세계관의 반영으로 해석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인용 참조. “현실 속에서 하찮고 보잘 것 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강아지똥’, ‘떡구렁이’, ‘깜둥바가지’, ‘뿔배’는 각자 자신들에게 닥친 불행한 현실 앞에서 쉽게 좌절하거나 비겁하게 ‘죽음’을 피하려 하기보다 오히려 ‘죽음’을 담담하게 자신들의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여준다. 또한 하늘에 오롯이 빛나는 ‘별’이 되어 영생의 삶을 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현세적 삶의 의미보다 내세적 삶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그의 기독교적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생 성서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던 작가의 삶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권혜경, 앞의 글, 96쪽).”

이 장에서는 이처럼 작가의식과 장르라는 두 가지 핵심어를 토대로 단편동화집 『강아지똥』의 세계를 몇 가지 양상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우선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는 주제 의식이 드러나는 작품들의 경우 대부분 알레고리적 판타지 장르를 채택하고 있으나 인물의 특성에 따라서 미적 성취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입체적 인물과 평면적 인물<sup>24)</sup>로 나누어 주요 작품들의 양상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나서 후기 주요작들의 특징인 민족사에 대한 역사의식과 리얼리즘 정신의 토대가 되는 작품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전형적인 리얼리즘 문법으로 쓰여진 『금복이네 자두나무』와 같은 작품뿐 아니라 서사성보다는 서정성이 강한 『무명 저고리와 어머니』와 같은 작품들 속에 내재된 역사의식을 살펴봄으로써 초기작과 후기작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1) 인물의 특성에 따른 서사의 양상

### (1) 평면적 인물의 현실 승인과 순명

권정생의 첫 번째 작품집에서 가장 빈번하게 드러나는 작품 유형은 운명을 승인하는 순명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작품들이다. 이른바 평면적 인물들은 서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이미 성격이 고정되어 있는데 이 작품집 속에서는 무생물을 의인화한 존재가 대부분이다. 대표작은 『깜둥 바가지 아줌마』로, 이 작품에는 사기 접시와 부지깽이, 바가지, 오목탕끼

24) 주지하다시피 평면적 인물은 서사 속에서 인물의 극적인 발전이 없으며 입체적 인물은 서사 속에서 성장하고 변화한다. 소설가 E.M. 포스터는 소설에 대한 저서 『소설의 이해』에서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을 구분한 바 있다(E.M. Foster, 이성호 역, 『소설의 이해』, 문예출판사, 1996, 73-92쪽 참조). 평면적 인물은 단일한 생각이나 특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 구절이나 한 문장만으로도 그 인물에 대해서 묘사될 수 있으나 입체적 인물은 기질이나 동기가 복잡미묘하므로 적절하게 묘사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하였다(M.H.Abrams 저, 최상규 역, 앞의 책, 48쪽 참조).

등 부엌 살림에 쓰이는 기물들이 등장한다. 주인공인 깜둥바가지는 ‘그  
 을음에 찌들어 까맣게 된 얼굴이 보기 싫’은 외양을 하고 있기에 모두의  
 놀림감이 되고 만다. 그 가운데 유독 심한 사기 접시의 놀림에도 깜둥바  
 가지는 “난 사기 접시가 그러는 게 조금도 밍지 않아.”라며 빙그레 웃기  
 만 한다. 어느 날 개울로 나갔던 바가지가 돌에 부딪혀 금이 가고, 굵은  
 무명실로 꿰맨 자국까지 남게 되자 놀림은 더욱 심해진다. 참다못한 된  
 장 떡배기가 투덜거리려도 스스로 누우치기를 기다리던 깜둥바가지는 마  
 침내 버려지게 된다.

“너무 슬퍼들 마세요. 그 동안 여러분들과 이 부엌 안에 살면서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지금에서야 돌이켜보니, 제가 못 생겼어도 쓸모 있는  
 바가지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는데를 새삼 깨닫게 되는군요.”  
 …… 깜둥바가지 아줌마는 이젠 슬프지 않았습니다. 일그러진 얼굴에  
 곱게 웃음을 머금고 반짝이는 별을 쳐다보며 귀여운 사기 접시가 간 곳  
 을 찾아 어두운 강물 위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sup>25)</sup>(81-82면)

깜둥바가지는 자신의 처지를 결코 비판하지 않는다. ‘해님이 병글병글  
 웃’시고 있는 한 ‘세상은 화안하고 또 즐거운 것’이란 생각을 놓지 않  
 는다. 지금의 처지가 슬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분복이며 그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짝이는 별’을 볼  
 수 있어 다행이며, ‘쓸모 있는 바가지로 태어난 것’이 다행이라는 인식이  
 다.

이와 같은 순명의 자세는 다분히 종교적이다. 권정생 사유의 기저에  
 놓인 기독교적인 세계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참담한 고통 속에서도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며 그 운명을 순간적이거나 밝  
 혀 보이는 것은 ‘반짝이는 별’, ‘병글병글 웃’는 해님 등과 같은 초월적인

25) 이하 작품의 출처와 인용은 1974년에 출간된 세종문화사판을 바탕으로 하여 본  
 문에 인용면수를 병기하는 것으로 각주를 대신하고자 한다.

존재이다. 그저 순하디 순하게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서로 사이 좋게 지내’며 ‘맡은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식으로 삶을 수궁하는 자세가 드러나 있다. 이러한 태도는 『장대 끝에서 웃는 아이』에서도 발견된다.

“여러분들이 즐거우시다면 저는 계속 춤을 추겠어요. 부러 웃는 웃음도 웃겠어요. 이렇게 죽음과 싸우면서 위태로운 곡예를 해 가면서도, 웃으며 살아야 하는 세상이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잊지않고 부질없이 여러분들을 버리고 달아나려 했었지요. 그러나 이렇게 저는 잡혀왔어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 앞에서 웃는 거예요. 예쁘게 예쁘게 웃는 거예요.”(46면)

“난이야, 이런 말을 한다고 혹시 화내지는 말어. 난 차라리 난이가 서커스를 하는 것이 다행인 것 같아.”

어느 날 장대가 난이의 고운 얼굴을 조심스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난이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나도 이제 깨달았어. 우리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도 저마다 고달픈 일을 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어쩌면 더 위태롭고 어려운 일을 치르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

기차간에서, 들판에서, 산에서, 난이는 그 동안 지나온 숲한 길에서 보아 온 사람들을 떠 올렸습니다.(48면)

두 인용에서 알 수 있듯 주인공 난이는 자신의 처지를 ‘어쩔 수 없는 일’로 체념하고, 서커스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모두 ‘고달픈 일’, ‘더 위태롭고 어려운 일을 치르는 사람들’이기에 그들이 즐겁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겠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물의 경향은 『어시장 이야기』에서도 다르지 않다.

“어떻게 재들에게만 말해 줄 수 있었으면. 서로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언짢은 일들이 있었더라도 용서하고, 따뜻하게 사랑해야만 마지막 갈 수 있는 천국으로 가게 된다고…….” …… “너희들은 지금 모두 잠을 자고 있는 거야. 그 잠 속에서 아주 무서운 꿈을 꾸고 있단다.” …… “꿈

은 각자의 마음대로 풀 수 있는 거야. 모두들 지금 눈앞에 파도치는 푸른 바다를 그려 보아라. 우리들의 고향 바다. 내가 살던 집과 사랑하는 식구들 얼굴을 그려 보아라.” …… “그래, 맞았어. 우리들이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려면 거추장스러운 우리 몸뚱이를 전부 아낌없이 써야 한다.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들의 임무를 다하여 내 몸을 남을 위해 바쳐 일하면, 저절로 영혼은 꽃처럼 곱게 피어난다. …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정답게 살아가는 거야.”(103-108면)

위 인용에서도 알 수 있듯 이 작품에서는 “천국”, “하나님”,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등의 표현을 통해 훨씬 더 직접적으로 기독교적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다. 특정 종교의 가치관이 인물의 대사를 통해 설파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대사가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평면적 인물을 통해 발화됨으로써 작품의 계몽적인 경향이 한층 더 강화된다. 그러나 ‘아름다운 영혼’, ‘죽지 않는 생명’ 등의 추상적인 관념어구로 종교적 신념을 강조하는 것은 문학적이지도 미적이지도 않다.

이처럼 권정생의 초기 작품 가운데 특히 무생물을 의인화하여 표현된 작품들, 그 가운데 인물의 평면성이 두드러지거나 삶의 알레고리로 제시된 종교적인 주제가 생경한 형태로 드러나는 작품들은 결코 좋은 문학 작품이라고 보기 어렵다. 화려하고 겉모습만 아름다운 대상이 아닌, 고난 받고 상처 입은 인물들의 이야기라고 해서 모두 “가련한 목숨들의 세계를 찾아가 그들을 부둥켜안고 뜨거운 눈물과 무한한 사랑을 쏟는”<sup>26)</sup> 문학은 아닌 것이다.

## (2) 입체적 인물의 성장과 희생

앞서 살펴본 작품들은 고정된 배경에 묶인 채 최소한의 동선으로 서사를 펼쳐나가며, 인물들은 서사의 진전 속에서 오히려 퇴행적으로 운명을 받아들인다. 사유나 감정의 변모는 없고, 고정된 시야를 벗어나지 못한 채 관념적인 도그마를 발화한다. 이에 비해 알레고리적 양식 속에서

26) 이오덕, 『학대받는 생명에 대한 사랑』, 원종찬 엮음, 앞의 책, 266쪽.

입체적 인물이 등장하는 단편들로는 「똥배가 보고 온 달나라」, 「강아지똥」, 「떡구렁이 기차」, 「토끼 나라」, 「아기 양의 그림자 딸랑이」 등을 들 수 있다. 「똥배가 보고 온 달나라」에서 인물은 배경의 변화에 따라 적극적으로 생각이나 느낌을 진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강아지똥」에서 인물은 고정된 배경에 묶여 있기는 해도 다채로운 인물들을 마주치면서 생각을 확장시켜 간다. 「떡구렁이 기차」에서 구렁이는 기차로 탈바꿈하고 「토끼 나라」에서는 할아버지의 간절한 노력에 힘입어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아기 양의 그림자 딸랑이」 역시 아기 양의 동선을 따라 경험의 폭을 넓히며, 그로부터 사유를 촉발하는 계기를 스스로 찾아간다. 배경이나 사건 등의 구성적 특성들이 인물의 발전을 예비한다는 점에서 서사적으로도 좀 더 진전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강아지똥』에서 성장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작품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작품은 단연 「강아지똥」이다. 그러나 「강아지똥」은 작품집에 실린 여타의 작품들과 공유하는 지점들이 적지 않다. 슬픔과 아름다움이 동류일 수 있다는 가치관의 전이를 꾀한다는 점에서는 「똥배가 보고 온 달나라」와, 변신 모티프를 통해 미천한 존재가 비상하는 존재로 부활한다는 점에서는 「떡구렁이 기차」와, 다양한 경험과 관계를 통해 인식이 발전하는 서사적 구조의 측면에서는 「아기 양의 그림자 딸랑이」와 유사하다. 이처럼 「강아지똥」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작품이 아니라 권정생 단편동화집 『강아지똥』에 수록된 다른 작품들과 상호텍스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작품으로 볼 때 온당하고 입체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아울러 함께 엮인 작품들의 한계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 역시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먼저 「똥배가 보고 온 달나라」는 소외되고 버림받은 존재인 똥배가 주인공이란 점에서는 권정생의 다른 단편동화와 다를 바가 없다. 더욱이 똥배는 어떤 현실적인 가치도 없이 아이들의 주전부리로만 존재하던 상태에서 시궁창이라는 더 나쁜 상태로 전락한다. 가지에 열린 똥배는 우

물 모퉁이 시궁창, 다시 말해 ‘더러운 곳’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가장 낮은 곳이야말로 권정생 동화 속 인물이 거쳐하는 자리라는 점은 입체적 인물이 등장하는 작품이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작품 속에서 가장 낮은 곳인 우물 모퉁이 시궁창은 더러운 곳이 아니라 ‘가장 귀한 영혼이 스며 있는 세상의 한 귀퉁이’로 새롭게 자리매김된다.

“더럽긴 무엇이 더럽니?”

아기 별은 다시 한 번 물었습니다.

“뭐야! 이제 보니까 날 놀리고 있구나.”

뜰배는 잔뜩 도사리며, 아기 별을 쨌려 보았습니다.

“절대로 놀리는 게 아냐. 이런 시궁창도 가장 귀한 영혼이 스며 있는 세상의 한 귀퉁이란다.”(15면 : 밑줄은 인용자)

작품은 밑줄에 제시된 이 선언적인 진술을 뒷받침하는 서사를 이어나가는데 가장 귀한 영혼을 보여주는 대신 가장 빛나는 존재들 속에 감추어진 가장 낮은 모습을 입증하는 것으로 서사를 전복시킨다. 뜰배는 별이 이끄는 대로 하늘나라 구경을 하고,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휘황한 광경도 목도한다. 그리고 달나라도 구경한다. 그러나 이들 아름다운 것들은 삶의 진정한 실체가 아니라 그저 보고 싶은 한 눈으로만 본 세상일 뿐이다. 한쪽 눈을 감고 바라보면 어떤 생명체도 존재하지 않는 ‘무시무시한 웅덩이와 돌맹이 산’으로 뒤덮인 ‘쓸쓸한 사막’일 따름이다. 그러나 빛과 어둠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존재한다. 어느 것도 어느 한 쪽이 진실이라고 말할 수 없는 미혹에 갇혀 있다. 견우와 직녀별을 보고 온 뜰배는 그 어느 한 쪽이 참된 진실이기를 바란다.

“아기 별아, 저 두 별님들을 언제나 한자리에 모여 살도록 할 수 없을까?”

뜰배는 측은한 마음이 들어 물어 봤습니다.

아기 별은 언제나처럼 생긋 웃으며,



“모여 살게 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얘기가 없어지잖니?”  
하고 뜻모를 대답을 했습니다.

“얘기가 없어지다니?”

“슬픈 일과 기쁜 일, 그런 아름다운 얘기가 영원히 사라져 버린다는  
거야.”

“슬픈 일이 어찌 아름다울 수가 있니?”

“만약 견우 별님과 직녀 별님이 함께 모여 살게 되면 저 은하수 강물  
은 필요 없게 되잖니? 그리고 우리는 행복한 그들을 어느새 잊어버리고  
말 것 아냐.”(25면)

이 작품에서는 슬픈 일과 기쁜 일, 이 두 가지가 나란히 공존하는 세상이 세상의 원래 모습임을 보여준다. 견우와 직녀의 헤어짐이 없으면 은하수 강물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은유적이며 종교적이다. 이 세상의 삶은 모두 허망한 가짜일 뿐이며, 진정한 본향은 하늘나라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 하늘나라의 행복이 제대로 된 행복이기 위해서는 고난을 겪는 참담한 현실이 꼭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권정생에게 세상을 산다는 것은 ‘삶과 죽음’, ‘기쁨과 슬픔’이 늘 함께 공존하는 것이며, 나아가 온전한 삶, 온전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죽음과 슬픔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주장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 과정에 놓여 있는 서사의 행정이다. 『똥배가 보고 온 달나라』는 경험하고 성장하는 서사 속에서 이 극단적인 양자가 잘 전이되거나 조정되기보다는 비약을 통해, 다시 말해 인식이 진전될 수 있는 과정은 생략된 채 이미 존재하는 결론을 제시한다. 인물의 입체성이 서사 속에서 충분히 펼쳐지지 못하고 여전히 작가의 관념 속에 머무르고 있다.

『떡구렁이 기차』는 “사람들처럼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맨송맨송 한 가닥 꼬나풀에 불과”한 구렁이가, 그것도 예쁠 것도 화려할 것도 없는 떡구렁이가 “난 구렁이밖에 못 되나 봐.”라고 읊조리면서 시작된다. 자신 안에서 긍정적 계기를 발견하는 대신 자신의 결함을 당연시한 가운

데 서사를 진행한다. 이처럼 자신을 긍정하지 못한 가운데 먹구렁이는 “기차가 되겠어요.”라고 선언한다. 그리고 나서 먹구렁이는 “꼭 미친 것 같애”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몸을 키우기 위해 부지런히 쪼다니며 운동을 한다. 그럼에도 애초에 꿈을 꾸겠다는 생각을 심어준 아이들에게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먹구렁이는 다시금 기차로 부활한다.

“토막이 난 채 흩어졌던 몸뚱이가 하나씩 살아 움직여 커다랗게 훌륭한 객차로 변했습니다. 창문뿐만 아니라, 지붕에서 바퀴까지 전부 투명한 유리빛 기차였습니다.

기관차가 된 머리통에 객차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기관차는 환하게 정거장 저 쪽 산모퉁이를 향해 있었습니다. …… 먹구렁이 기차는 들국화를 객차의 맨 앞자리에 꺾어 실었습니다.

“우리 둘이서, 저 멀리 세상을 한 바퀴 돌자꾸나. 내년 봄에 다시 돌아와 다른 애들도 함께 태우고 가자. 나는 온 세상을 찾아다니며, 막힌 곳을 틈워 놓겠어.”

먹구렁이 기차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194면)

먹구렁이가 새롭게 기차로 부활하였음에도 정작 ‘막힌 곳을 틈워’ 놓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른 기차들은 그곳에서 멈추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간절한 회원만 있을 뿐 서사의 구체적인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작품들과 견주어 볼 때 『강아지똥』이 남다른 지점은 부활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서사적 과정들이 개연성 있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강아지똥’은 움직일 수 없는 존재이기에 스스로 배경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는 없다. 『똥배가 보고 온 달 나라』의 경우 별의 도움으로 배경이 변화하지만 추상적이며 관념적이기에 현실성은 떨어진다. 강아지똥은 ‘골목길 담 밑 구석자리’에 고정되어 있어 배경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지만 그 대신 지나가며 마주치는 인물들과의 관계를 통해 변화의 계기를 형성한다. ‘참새’, ‘흙덩이’, ‘감나무 가랑잎’<sup>27)</sup>, ‘병아리 떼와 암

닭’, ‘별’, ‘민들레’ 등과의 만남은 한 단계 한 단계가 모두 보잘 것 없는 강아지똥의 자기 인식과 희망을 빚어낸다. 그런 점에서 이 단편집에 실린 여타의 작품들과 비교할 수 없는 단단한 구성적 특징을 지닌다.

그러나 주제의 측면에서 『강아지똥』은 개인의 완전한 희생을 요구하고 또 인물이 이를 수용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적지 않다. 이런 면에서 ‘희생을 통한 자아 실현’이 주제이며, ‘주제의식에 대한 작가의 강박증’으로 읽히기도 한다.<sup>28)</sup> 문제는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주제가 지나치게 압도적인 나머지 인물의 서사적 발전이 갖는 현실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희생을 통한 부활의 의미 그 자체를 ‘해괴’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에 대한 내재적인 평가 없이 작가의 삶에 근거하여 작품 자체의 의미를 일방적으로 과찬하는 것에 있다. 요컨대 『강아지똥』은 잘 정돈된 서사의 전개와 다채로운 인물들을 통한 의식의 발전을 구축하고 있으나 주제가 갖는 계몽적 한계 또한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한 평가일 것이다.

## 2) 역사의식을 드러내는 서사의 양상

### (1) 전형적인 리얼리즘 서사 문법을 통한 재현

알레고리적인 판타지가 『강아지똥』의 주요한 장르이지만 『금복이네 자두나무』, 『무명 저고리와 엄마』처럼 리얼리즘적인 작품들도 수록되어 있다. 『금복이네 자두나무』는 한국아동문학가협회에서 시상하는 한국아동문학상 수상작이기도 하다. 앞서 살펴본 작품들과 달리 기독교적 세계관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계급간의 갈등이 구체화되는 등 전형적인 리

27) 감나무 가랑잎은 창작집에서는 없는 존재이나 권정생은 생략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밝히며, 가랑잎이 있는 텍스트가 자신이 바라는 텍스트임을 피력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지호(2017) 논문의 10쪽 각주 참조.

28) 이지호, 위의 글, 15면. 이지호는 이 글 전체에서 권정생의 ‘강아지똥’이 ‘기묘한 성격과 해괴한 논리’로 접철되어 있다고 평가한다.

얼리즘 서사의 속성을 갖추고 있다.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성철이네 아버지와 금복이네 아버지가 자두나무 두 그루를 캐내었습니다. 너무 큰 나무이기 때문에 옮겨 심기가 까다로웠습니다. 뿌리를 다치지 않게 캐내는 데 무척 조심해야만 되었습니다. 팽이 끝으로 살살 깊어내어 실뿌리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218면)

금복이는 겨우 마련한 ‘한 마지기 남짓한 작은 떼기밭’을 갖고 있다. 보잘 것 없는 땅이지만 “어서 봄이 와서 자기들의 밭에 자두나무를 심고 보리밭 김도 매어 보고 싶”어 한다. 위 인용문은 금복이의 가족에게 새로 생긴 떼기밭과 자두나무의 의미를 잘 알 수 있게 해 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정성으로 옮겨 심어진 자두나무는 새로운 삶에 대한 약속이자 상징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자두가 콩알만큼 자랐을 때 마을 앞으로 큰 길을 닦는다는 통보가 오고, 금복이네 자두나무 밭이 몽땅 포함된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아버지는 땅을 판 최주사에게 통사정을 해 보지만 오히려 행랑채에서 나가라는 말만 듣게 된다. 결국 자두나무 밭은 불도저에 속절없이 밀려 버리고, 가족들은 망연자실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금복이는 최주사가 자신들을 속였음을 깨닫기에 이른다. 이러한 극적인 장면은 상징적인 비유를 통해 서술된다.

금복이는 얼른 최 주사 쪽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벗겨진 대머리에 햇빛이 비쳐 번들거렸습니다. 그건 사람의 머리가 아니었습니다. 머리통에 달린 다리가 주욱주욱 뺏어나갔습니다. 다리는 사방으로 수없이 너울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치자 조용하던 물 속엔 금세 파도가 일었습니다. 조그만 물고기들이 수없이 몰려왔습니다. 고기들은 파도에 밀려 허우적거렸습니다. 기다란 문어 다리가 한 마리의 작은 고기를 잡아 들들 감았습니다. 잠깐 사이에 작은 고기는 하얗게 핏기를 잃고 호늘호늘 떠올라 죽었습니다. 또 한 마리의 고기가 역시 기다란 다리에 감겨 죽었습니다. 문어 다리는 닥치는 대로 작은 고기들의 피를 빨아먹었습니다. 바닷속엔 고기들의 시체가 가득히 깔렸습니다. 문어는 그 시체 위를 유

유히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225-226면)

최주사와 금복이네의 관계가 문어와 물고기로 대체되어 있고, 수탈과 착취로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물고기가 곧 자신들임을 깨닫는 것으로 서사가 마무리되고 있다. 금복이를 초점화자로 하여 “어머니가 이때만큼 가엾어 보인 때가 없었습니다.”라고 서술함으로써 가족들의 심리적 연대가 공고해짐을 나타낸다. 자신들을 속인 최주사에 대한 증오와 함께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가족들에 대한 연민을 함께 드러내는 것은 도식적으로 현실을 비판하는 당대의 일부 작품들에 비할 때 한결 풍부한 인식이라 볼 수 있다.

## (2) 서사시적 압축을 통한 재현

『금복이네 자두나무』가 민중의 삶에 대한 권정생의 비판적인 현실 인식이 날카롭게 표현된 것이라면 『무명 저고리와 엄마』는 가족사를 통해 민족사의 비극을 시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민족 현실에 대한 권정생의 인식은 첫 번째 작품집 『강아지똥』의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바 『아기 양의 그림자 딸랑이』에서는 전쟁에 대한 깊은 혐오가, 『토끼 나라』에서는 분단된 현실에 대한 고통스러운 인식이 드러나 있다. 『남쇠와 파란 눈의 아이』에서도 분단 현실은 서사의 중요한 갈등을 초래하는 장치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들 작품들은 주제 의식이 앞섰을 뿐 서사적으로 잘 다듬어진 작품이라 보기 어렵다. 특히 『남쇠와 파란 눈의 아이』는 이야기의 전개 자체를 종잡을 수 없으며 주제 의식조차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작품이다.

이에 비해 『무명 저고리와 엄마』는 장구한 서사시적 문체를 통해 한 일 합병에서부터 월남전 참전에 이르기까지의 민족사를 한 가족사 속에 응축시키고 있다.<sup>29)</sup> 인물은 일본의 침탈에 저항하던 남편을 잃고, 첫째 복돌이는 북간도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떠나고, 둘째 차돌이는 일본

29) 『무명 저고리와 엄마』를 서사시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연구는 이내관·정문환, 앞의 글 참조.

유학길에서 자취를 찾을 수 없게 된다. 삼돌이는 징용에 끌려가서 죽고, 막돌이는 한국전쟁으로 다리 하나를 잃고 만다. 시집 간 큰분이는 북으로 가고 둘째 딸 또분이는 양공주가 되며 막내 무돌이는 월남전에서 전사한다. 이 모든 가족들의 환난은 한국 현대사의 곡절과 정확히 조응한다. 비록 이 정확한 조응으로 인해 이 작품이 이미 존재하는 틀 속에 인물을 밀어 넣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지만<sup>30)</sup> 그럼에도 현대사의 큰 흐름을 동화 속에 포착하고자 한 시도와 그 형상화는 의미있다고 볼 수 있다.

엄마 저고리를 가운데 두고 무지개가 피어났습니다. 일곱 빛의 촛불이 따스한 그림처럼 엄마 저고리를 밝혔습니다. 무지개를 타고 엄마의 사랑스런 아가들이 조롱조롱 나타났습니다. 북돌이 얼굴이 엄마 어깨 위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 색동 무지개가 아가들의 얼굴을 곱게 물들였습니다. 목화밭에서는 하얀 목화송이들이 피어났습니다. 북간도와 남태평양 바다와, 월남 땅으로 엄마의 손길처럼 따스한 목화송이들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로 반 조각 땅을 딛고 선 막돌이가, 무지개의 한 끝을 잡고 목화밭 위에 사뿐히 펼쳐 놓았습니다. 엄마 얼굴이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69-70면)

장구한 시기의 역사적 사건들을 치밀하게 포착할 수 없다는 단편동화의 한계는 상징적인 인물의 설정과 서사시적인 구성, ‘무지개’, ‘목화송이’, ‘무명 저고리’ 등과 같은 미적 대상을 통해 아름답게 형상화되었기 때문이다. ‘한쪽 다리로 반 조각 땅을 딛고 선’ 막돌이의 인물 형상 역시

30) 가령 둘째 아들 차돌이 일본 유학길에 오른다는 설정은 아버지 없는 가족들의 처지를 고려할 때 전혀 현실성이 없다. 또한 또분이가 양공주가 된다는 설정 역시 구체적인 서사 내적 계기 없이 급작스럽게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사건은 서사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사건 전개의 중요한 과정으로 기능한다기 보다 역사의식을 드러내고 민족사의 질곡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상징적으로 언급되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역사의 환란에도 삶을 이어가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를 상징적 이미지로 나타내고 있다.<sup>31)</sup>

#### 4. 『강아지똥』의 문학사적 의의

이 연구는 권정생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가 권정생의 삶이 주는 세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채 온당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비판적인 조명이 없지는 않았으나 총체적인 권정생의 문학에 대한 논의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몇몇 대표작에 치중하고 있는 기존의 연구 성과도 반성적으로 되돌아보아야 할 시기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작가의 생애와의 관련성보다는 작가 의식과 서사의 양상에 초점을 두고 그의 초기작들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그동안 가장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어온 『강아지똥』이 수록된 『강아지똥』에 나타나는 작품의 양상들을 살펴보았다. 우선 작품집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알레고리적 판타지 작품들이 대부분 기독교적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으나 인물의 특성에 따라 세부적인 서사성의 차이를 나타내며 그 결과 미적 성취면에서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살펴 보았다. 그 과정에서 권정생의 초기 작품에 대한 비평적인 평가뿐 아니라 그간 주요 연구 대상이 되어온 『강아지똥』을 다른 수록

31)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어디까지나 이 작품을 동화의 보편적인 서사 문법이 아닌 서사시적 특성을 갖는 개성 있는 작품으로 바라볼 때 유효한 것이다. 실제로 이 작품에는 인물의 대사가 전혀 등장하지 않고 오로지 서술자의 서술로만 이루어져 있다. 서사 속 사건들의 시간의 길이에 비해 그러한 사건이 재현되는 서술의 시간이 짧아 압축적으로 서사를 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서술자의 시선에서 시적 대상을 바라보는 듯한 간접적인 문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도 이 작품은 시적인 특성이 농후하다.

작과의 관련 속에서 새롭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권정생의 지배적인 작가 의식의 다른 한 축인 역사의식이 드러나는 작품들도 살펴보았다. 작가 권정생에게 역사의식은 후속자인 전쟁 3부작과 같은 걸출한 작품들에도 이어지며 리얼리즘 작가로서 권정생이 도달한 성취의 밑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기독교적 세계관이 두드러진 초기작들 가운데 이러한 바탕을 엿볼 수 있는 작품들을 살펴봄으로써 초기작과 후기작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었다.

16편의 작품이 수록된 권정생의 첫 번째 작품집 『강아지똥』은 무엇보다 권정생이 평지돌출의 작가가 아니라 쉼 없이 성장해 가는 작가였다는 것을 드러내준다. 수작으로 평가되는 『강아지똥』에 앞서 수많은 시행착오들이 다른 작품들 속에서 거듭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리얼리즘 계열의 작품이 거둔 미적 성취나 현실 인식 등의 양상은 훗날 권정생이 『몽실언니』를 통해 도달할 성취의 밑바탕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강아지똥』의 문학사적 의미는 작가 권정생이 뛰어난 작품에 이르는 도정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는 점에 있다. 민족사의 질곡과 민중적 삶에 대한 역사의식을 밑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시도를 통해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마침내 『몽실 언니』라는 한국 아동문학의 이정표가 창작될 수 있었다는 것도 이 작품집을 통해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작품집 『강아지똥』에는 어린 등장인물의 질문에 답을 해주고 그들에게 세상의 이치를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의 인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점, 작품 세계의 주류를 이루는 기독교적 관점의 작품들과는 달리 죽음이나 희생을 통하지 않고 현세의 삶을 긍정하고 현실 속에서 전망을 찾으려는 리얼리즘적 정신을 공유하는 작품들이 나타나는 점 등 흥미로운 지점들이 눈에 띄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들이 권정생의 문학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치 또한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1. 자료

- 권정생 글·정승각 그림, 『강아지똥』, 길벗어린이, 1996.
- 권정생, 『강아지똥』, 세종문화사, 1974.
- \_\_\_\_\_, 「위선에서 진실을 일깨워주는 일」, 『아동문학평론』 1(1), 한국어동문학연구센터, 1976, 77쪽.
- \_\_\_\_\_, 「『강아지똥』 당선 소감 - 끝없는 사랑을」, 『기독교교육』 1969년 6월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47쪽.

### 2. 논문 및 단행본

- 권혜경, 「권정생 초기 단편동화의 서사 양상 고찰」, 『한국아동문학연구』 Vol.32, 한국아동문학회, 2017, 81-101쪽.
- 김정은, 「음악극:강아지똥」, 2008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윤경, 「권정생 초기 단편동화의 희생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김하얀, 「애니메이션 ‘강아지똥’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안 연구」, 수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박금숙, 「권정생 초기 동화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양연주, 권정생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엄혜숙, 「권정생 문학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원종찬, 「이원수와 70년대 아동문학의 전환」, 『문학교육학』 28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09, 499-525쪽.
- 원종찬 엮음, 『권정생의 삶과 문학』, 창비, 2008.
- 유미, 「동화 『강아지똥』 매체 변용에 따른 아동의 문학 반응 양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이내관·정문환, 「권정생의 무명저고리와 엄마 연구」, 『한국언어문학』,

- 90, 한국언어문학회, 2014, 381-405쪽.
- 이지호, 「『강아지똥』에 대한 재평가」, 『아동청소년문학연구』 No.20, 한국아동청소년문학회, 2017, 7-39쪽.
- 이현주, 「동화작가 권정생과 강아지똥」, 원종찬 엮음, 『권정생의 삶과 문학』, 창비, 2008.
- 임성규, 「권정생 아동문학의 흐름과 연구 방향」, 『문학교육학』 Vol.25, 한국문학교육학회, 2008, 155-184쪽.
- 임정희, 「강아지똥:음악극」,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장경혜, 「권정생 단편 동화의 문체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조은숙, 「‘마음’을 가르친다는 것:동화 『강아지똥』에 대한 알레고리적 독해의 문제점」, 『문학교육학』 Vol. 22., 한국문학교육학회, 2007, 89-116쪽,
- 최기숙, 『환상』, 연세대학교출판부, 2010.
- 한양하, 「권정생 서사문학 연구: ‘시련’을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2012.
- Abrams 저, 최상규 역, 『문학용어사전』예림기획, 1997.
- E.M.Foster, 이성호 역, 『소설의 이해』, 문예출판사, 1996.
- Herman, D., Manfred, J. A. H. N., & Marie-Laure, R. Y. A. N. (Eds.), *Routledge Encyclopedia of Narrative Theory*, Routledge, 2010.
- Tolkien, J. R. R., *Tree and leaf*, HarperCollins, 2001.

<Abstract>

## A Study on Kwon Jeong-Saeng's Short Fairy Tales in 『Puppy Poo』

Nam, Ji-Hyun\*

The study of Kwon Jeong-Saeng was overwhelmed by the writer's life and could not be analyzed objectively. Although there was studies standing on the critical view, the discussion of total Kwon Jung-Saeng's works is still insufficient. The results of existing research focusing on several masterpieces are also needed to be supplemented for the overall study of the literature of Kwon Jung-Saeng. Therefore I looked at the first work of Kwon Jong-Saeng' "puppy poo" by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work itself as much as possible to exclude references about the artist' s life. As a result, the collection of "puppy poo" can be divided into several aspects by artist consciousness and genre standard. First, the aspect of the narrativ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aracters showed different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flat characters and round characters. Second, the aspect of the narrative revealing historical consciousness showed different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narrative grammar. Through this analysis, I could find the limit and accomplishment of the "puppy poo" and the link between successor works.

---

\* Incheon Gawon Elementary School.

Key Words: Kwon Jeong-Saeng, 『Puppy Poo』, Narrative Aspect, Flat  
Character, Round Character, Historical consciousness

- 논문접수 : 2019년 3월 20일
- 심사완료 : 2019년 4월 3일
- 게재 확정 : 2019년 4월 12일